

# 조계종 공익기부재단 연내 설립

### 구호·복지 등 5개 분야 사업...자비나눔기금 3억 출연 9월 중 준비위 구성, 외부 전문자문위원 초청 공청회도

불교계에 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한 공익기부 재단이 설립된다.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는 8월 29일 "종무회의에서 불교계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기금 모금 창구로 기부재단을 설립하기로 결의했다"며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및 기업·국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별도 법인으로 연내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종 공익기부재단(가칭)은 아름다운재단·월드비전·굿네이버스 등을 모델로 삼아, 구호·복지·통일·환경·국제 등 5개 분야 활동 지원 기금을 조성·관리·감독하며, 사업실행은 불교계 사회단체가 맡게 된다. 조계종은 그동안 모금한 자비나눔기금 중 3억 원 출연을 시작으로 2010년까지 70억 원을 공익기부재단 기금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조계종 사회부는 9월중으로 재단 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외부 전문자문위원을 초청한 공청회를 통해 세부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할 방침이다. 조직 구성은 조계종 총무원장을 이사장으로 각계의 저명인사를 상임이사로 추대할 예정이다. 김용구 조계종 사회부 행정관은 "그동안 불교계 사회 지원 사업의 기금 마련은 각 현안이 발생할 때 마다 모금 혹은 조계종 예산을 통해 효율적이지 못하게 운영돼 온 점이 있다"며 "공익기부재단이 설립되면 사회활동지원법과 맞물려 불교계 공익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일 기자

## 동국대 경주캠퍼스 특성화 센터 건립

동국대 경주캠퍼스는 자연과학관 주차장 일대에 특성화 센터를 건립한다. 특성화 센터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대학교육개혁 선도대학으로 선정된 동국대가 국고지원금 29억 원 등 총 40억 원을 들여 조성하는 시설이다. 특성화 센터는 에너지와 환경을 특화시킨다는 학교의 목표에 따라 강의실과 실험실습 공간이 마련되고, 특성화 사업단 연구공간으로 활용된다. 지상 4층에 건물면적 3400㎡(1000여 평) 규모로 건립되는 특성화 센터는 일반연구실과 세미나실, 멀티미디어실, 강의실, 실험실 등으로 구성 된다. 김주일 기자



혜충 스님이 린첸 칸도에게 티베트 비구니를 위한 기금을 전달하고 있다.

## “달라이 라마 초청하고 싶다”

### 혜충 스님, 린첸 칸도 예방 자리서 밝혀

#### 비구니 기금 1만불 전달

“한국 불자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가 달라이 라마 방한을 원하고 있지만 정치적인 문제로 방한하지 못해 안타깝다. 양국 불교가 노력하면 머지않아 방한이 가능할 것이다. 나도 달라이 라마 방한을 초청하고 싶다.” 조계종 포교원장 혜충 스님이 달라이 라마 방한 초청 의사를 밝혔다. ‘남북분단’이라는 정치적인 한계를 단서조항으로 달았지만, 현지 포교원장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무게감이 남다르다. 하지만 단순한 ‘팁 서비스’ 차원인지 구체적인 실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인지는 미지수다.

혜충 스님의 이 같은 발언은 8월 30일 티베트여성수행자프로젝트(Tibetan Nuns Project, 이하 TNP) 총재 린첸 칸도 예방 자리에서 나왔다. 혜충 스님이 린첸 칸도에게 티베트 비구니를 위한 기금 1만불을 린첸 칸도에게 전달했다. 포교국장 오심 스님도 100만원을 즉석에서 기부했다. 남동우 기자

MIRAE ASSET 미래자산투자

금융환경변화에 따른 투자자의 길을 열어 드립니다.

펀드 / 변액보험 / 연금

문의: 최상선 011-253-3747



## 용인 좋은절, 터널 공사로 피해

용인 좋은절(주지 범경)이 서울고속도로 3공구 구간의 낙생터널공사로 건물 곳곳에 균열이 가고 문이 휘틀리는 피해가 심각하다. 좋은절측은 8월 31일 스님 10여명과 신도, 불교환경연대 등과 함께 해 터널 공사 현장에서 항의 시위를 했다. 글·사진=고영배 기자

## 교육·문화 등 9개 분야 토론

### 불교정책토론회 개최

불교의 미래 정책과제를 제시하기 위한 '불교정책토론회'가 열린다. 조계종 총무원과 불교정책기획단(공동단장 승원·허경만)은 9월 3~13일 오후 2시 불교인재개발원 2층 회의실에서 불교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교육·문화·환경 등 불교와 관련된 정책적 관심분야를 9개 분야로 나누어 살펴볼 예정이다.

9월 3일에는 불교관계법을 정리해 보는 것으로 시작으로 4일 환경·생태, 5일 국제사회, 6일 불교콘텐츠, 7일 남북불교 관련 정책을 살핀다. 9월 10일에는 문화·문화재 관련 분야를, 11일 교육·청소년, 12일 사회·복지, 13일 불교미디어 분야를 점검한다. 14~15일에는 분야별 추진팀과 발제자들이 참여하는 전체 워크숍을 열어 정책 의제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고서로 작성할 계획이다. 불교정책기획단은 "토론회를 통해 정리된 정책 제안사항을 보고서로 만들어 정부 관계자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수령 기자



통도사 주지 정우 스님(왼쪽)이 지관 스님에게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

## 통도사, 北 수해복구 성금 전달

양산 통도사 주지 정우 스님이 북한 수해복구 성금 3300만 원을 8월 30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에게 전달했다. 성금은 통도사 분말사 차원에서 모금했으며, 특히 통도사 보광선원 대중들도 참여해 해제비 300만 원을 모아 전달했다. 지관 스님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동포들에게 큰 힘과 위트가 될 것"이라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남동우 기자

## 조계종 중신회, WFB 회원 가입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김의정)가 세계 불교도우의회(World Fellowship of Buddhists, 이하 WFB) 회원으로 가입했다. WFB 집행이사회는 8월 22~23일 일본 도쿄 프린스호텔과 증상사에서 제73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의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는 지난해 3월 회원가입을 신청했으며, 이번이 가입이 결의됨에 따라 2008년 11월 일본에서 열리는 WFB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 회원으로 최종 가입하게 된다. 여수령 기자



팬 와나메티 WFB회장(가운데)과 손인식 조계종 중앙신도회 상임부회장(오른쪽에서 두번째).

WFB는 1950년 미얀마 양곤에서 결성된 세계불교 국제협력조직으로 한국지부위원회는 1963년 결성됐다. 02-7133-7277

I Love Buddha / 생각을 쉬기

용정운(www.zenlooon.com)

# 전등록 강좌안내

출가스님들만의 공부모임 경전연구회가 창립 3년이 넘어섰습니다.

- ◆경 전: 전등록
- ◆강 주: 지리산 칠불사 통광큰스님
- ◆개 강: 10월 15일 월요일 오후 2시
- ◆장 소: 옥수동 미타사내 대승암
- ◆수강신청: 9월 30일 까지(입금후 전화요망)
- ◆과 정: 1년 전후
- ◆요 일: 매월 셋째 월요일 오후 3시 - 6시
- ◆수 강 료: 6개월 30만원(교재무료제공)

■경전 연구회 창립 목적

- (1) 불조의 가르침을 정확히 이해하고 정법불교의 정체성을 확립한다.
- (2) 대덕큰스님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전통을 계승발전 시킨다.
- (3) 조계종산하 불교대학의 교수사를 양성 전중도의 교육화, 조직화, 체계화에 기여한다.
- (4) 승가의 아름다운 전통을 창조하고 포교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며 1년에 2번 이상 산철에는 전통선원에 입방하여 선원장 스님들의 지도아래 정진 수련하는 전통을 세운다.

※ 뜻을 함께하는 조계종(비구, 비구니) 스님들께서는 언제나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출가자의 아름다운 삶을 실천으로 옮겨 청정승가의 가풍을 확립하는 디딤돌이 됩시다.

◆계좌번호: 국민은행 458701-04-155072(예금주:김영희)

◆문의전화: 회장 011-420-7838(지장스님) / 재무 010-3825-2158(승지스님) / 총무 011-9038-9594(법정스님)

